

집단 내 동료평가 결과와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의 관계 분석: 리더십수업 사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채 수 진 · 임 기 영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agroup Peer Assessment Results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in a Leadership Curriculum

Su-Jin Chae and Ki-Young Lim

Office of Medical Education,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agroup peer evalu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DLR) in a leadership class that used a project learning method. Moreover, it identified the specific components of the SDLR that predicted the peer evaluation results.

Methods: The research subject pool comprised of 47 3rd year students. Each team was composed of 4~5 members, each of whom evaluated all other members on his or her team SDLR was measured by using SDLR-K-96.

Results: SDLR and peer assessment score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confirming that SDLR was an important variable that could predict the peer evaluation scores. Among the SDLR factors, 'openness to challenge' was shown to have the highest predictive power for the peer assessment.

Conclusion: Medical schools should provide students with learning opportunities on leadership through diverse learning methods such as project learning. The ability to do self-directed learning in such a leadership course in medical education is important for successful team building.

Key Words: Peer group, Programmed instruction as topic, Educational measurement

서 론

의료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의사의 역할도 과거와 달라졌다. 과거의 의사들은 한 두 명의 간호

사와 함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종합 병원이라 할 지라도 전체 인력의 75%는 청소, 빨래, 조리 등 단순 작업 종사자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종합병원은 30가지가 넘는 전문, 비전문 직종이 함께 일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합적인 조직체의 하나이다. 이러한 거대하고 복합적인 조직체를 효과적으로 관리, 경영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도전이다. Drucker (2001)의 말처럼 병원 경영은 모든 경영 중 가장 힘든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지도

Received: July 21, 2008 Accepted: September 16, 2008

Corresponding Author: Su-Jin Chae

edujin@ajou.ac.kr

* A part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23rd Scientific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in May, 2008.

력과 경영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의과대학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핵심역량으로서 변화에 대응하여 문제해결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서는 2000년부터 리더십 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리더십 수업은 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이라는 자기주도학습의 한 학습형태를 활용하여 팀 내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고 협동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의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의학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개인학습과 성취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연구는 있지만 (Chae *et al.*, 2004), 집단주의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의 개인 특성이 집단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며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젝트학습으로 진행한 리더십 수업에서의 팀 내 동료평가 결과와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하위 요인 중 동료평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7학년도 1학기에 리더십 과목을 수강한 본과 3학년 4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리더십 수업은 11주 (총 22시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강의 및 실습 (10시간)과 함께 팀 과제를 부여하는 프로젝트학습 (12시간)으로 진행하였다. 한 팀은 4~5명으로 구성되고 마지막 시간에 동료평가와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검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동료평가는 구성원 중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의 기여도를 점수로 사정한다. 점수는 A (4점), B (3점), C (2점), D (1점)를 부여할 수 있다. 평가자는 A와 B를

각각 두 명까지만 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제외한 4명의 동료에 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4점 (A, A, B, B)이 된다. A와 D를 부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동료평가 점수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받은 점수의 평균값으로 범위는 1~4점이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Guglielmino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검사를 원용한 성인 대상 검사인 SDLR-K-96을 사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Yoo & Cheong, 1998). SDLR-K-96은 학습에 대한 애착 (40점), 학습자로서의 자신감 (40점), 도전에 대한 개방성 (40점), 학습에 대한 탐구심 (20점), 자아에 대한 이해 (10점), 학습에 대한 책임감 (10점) 등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점수에 따라 동료평가 점수와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수로 사용된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점수는 삼분위 (tertile)로 구분하여 높음, 중간, 낮음의 3개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Tukey의 B법을 사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6개 요인들에 따라 동료평가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 입력 (enter)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수준에 따른 동료평가 점수 분석

높음, 중간, 낮음으로 구분한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점수에 따라 동료평가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높음, 중간, 낮음의 집단간의 분산의 동질성을 검사 결과 Levene의 통계량이 유의확률 .526으로 등분산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 ($p > .05$). F검정을 실시한 결과 (Table 1),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점수 수준 따라 동료평가 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Tukey법으로 사후분석 한

Table 1. Comparison of Peer Assessment Score (PAS) by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ore (SDLRS) Level (N)

SDLR level	n	PAS Mean (SD)	Tukey B	F	Sig.
High	15	3.37 (.643)	a)		
Middle	16	2.97 (.549)		3.48	.039
Low	16	2.85 (.502)	a)		

a)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DLR) Factors and Peer Assessment Score (PAS)

SDLR factor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Love of learning	.023	.028	.180	.810	.423
Self-confidence as a learner	-.013	.031	-.100	-.407	.686
Openness to challenge	.079	.031	.361	2.534	.015 ^{a)}
Inquiry to learning	.086	.052	.304	1.640	.109
Self-understanding	-.042	.086	-.097	-.489	.628
Responsibility for one’s own learning	.032	.086	.070	.375	.710

a)p<.05

결과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요인에 따른 동료평가 점수 분석

동료평가 점수와 자기주도학습준비도 하위 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전체 모델의 설명량은 22.9%였으며, Table 2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준비도 6개의 요인 중 ‘도전에 대한 개방성’ 요인의 경우만 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동료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beta=.361, p<.05$).

고 찰

전통적으로 자기주도학습관련 연구들은 성인학습

자의 자율성, 독립성, 자기통제, 자기책임 등을 바탕으로 한 내적인 학습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학습에서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의 특징은 학습자 자신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존재로 이해되어 왔다 (Kim, 2005).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몇몇 연구들에서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의 새로운 사회적 특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즉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적극적이며,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협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Andruske, 2000; Cho, 2002). Cho & Kwon (2005)의 연구는 소집단학습에서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집단내 공유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성공적인 학습을 만들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점수가 높은 학습자들이 동료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고,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요인이 동료평가의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가에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점수는 동료평가 점수와 관련이 있었으며, 동료평가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요인 중 ‘학습에 대한 개방성’ 요인은 동료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Yoo & Cheong (1998)에 의하면, ‘학습에 대한 개방성’은 학습에 대한 관심, 자신의 주도권에 대한 만족, 학습에 대한 애정과 계속학습에 대한 기대 비판의 수용과 이용가능성 등이 포함된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개방성’과 같은 개인특성이 집단 활동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학습으로 진행된 리더십 수업에서 실시된 동료평가는 학생들이 평가의 주체가 되었으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없이 전반적인 동료들의 기여도를 하나의 점수로 사정하도록 하였고, A점수와 D점수를 부여한 경우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팀제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학습에 대한 애정을 가진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료들에 의한 평가는 자기주도적 개인특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과대학은 변화에 대응한 문제해결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팀워크의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리더십, 의학적 결정, 의사소통 등과 같은 인문사회의학 교과목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에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의과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인 및 집단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천편일률적인 수업방법이나 평가방법을 지양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 국한되어 표본 크기가 작다는 것과 동료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학습에 대한 개방성 이외의 요인들이 동료평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의과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ndruske, C.L.(2000). *Self directed learning as a political act*. Paper presented at the 41st Annual Adult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Vancouver, Canada.
- Chae, S.J., Shin, J.S., & Lee, Y.S.(2004). Comparison of the academic achievement by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levels in a hybrid problem based learning course. *Korean J Med Educ*, 16, 281-288.
- Cho, D.(2002). The connection between self directed learning and the learning organization. *Hum Resour Dev Q*, 13, 467-470.
- Cho, D., & Kwon, D.B.(2005). Self directed learning readiness as an anteced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 Korean study. *Int J Train Dev*, 9, 140-142.
- Drucker, P.F.(2001). *The essential Drucker*. New York: HarperBusiness.
- Kim, M.S.(2005). A model of self directed learning in the workplace. *J Lifelong Educ*, 11, 173-196.
- Yoo, K.O., & Cheong, J.Y.(1998). Demographic and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to adults' self-direction in learning. *Korean J Adult Contin Educ*, 4, 119-149.